

社說

대학언론 탄압을 바라보며

최근 '96 한총련 연세대 통일투쟁과 관련해 신공안정국의 바람이 대학언론을 강타하고 있다.

이미 송실대신문이 완전 발행정지 됐으며 편집장 포함 4명의 기자가 구속된 것은 물론 서강대와 건대신문은 제작중지에, 서울시립대와 숙대신문은 배포금지되거나 늦게 배포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방침을 대학언론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 정부와 제도언론에 대한 공안탄압에 적극 대처할 것임을 천명했다.

우리는 이번 검찰과 각 대학당국들의 언론 탄압을 보면서 지난 91년 학원안정화 대책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학생회규제나 학사관리, 대학언론의 이적성시비등 일련의 조치에 근거한 학원안정화 대책은 6공화국 당시의 학원안정화 대책과 별반 다를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신문규제와 관련해 교육부가 재정 지원을 차등화하겠다는 방침은 그 동안 대학자율화를 외쳤던 대학당국의 의도와도 명백히 위반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검찰발표에 의해 대학당국이 대학신문을 감시, 징계하는 처사는 명백한 탄압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

개강이후 대학은 통일투쟁에 대한 의견을 다양하게 표출하면서도 제도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비판을 제기했다. 이것은 이미 대자보와 PC통신상의 논쟁에서 보아 왔던 사실이며 진실성을 보도하기 위한 대학신문들의 노력에 의한 성과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대학언론은 군사독재와 싸우며 학생회 자치권확보와 대학사회의 자율성을 쟁취하는데 있어 대학사회의 여론형성에 앞장서 왔다. 또한 제도언론이 군사정권의 이데올로

기를 대변하는 동안 대학신문은 우리사회의 비판적 기능을 선도했으며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던 것도 사실이다. 암울했던 유신정권하에서도, 정권의 정통성을 상실한 5.6공화국 하에서도 우리는 이적표현물이라는 굴레를 안고 정론지로서의 위치를 끝끝내 고수해 왔다. 군 반세기 동안 대학신문의 역사는 정간과 폐간이라는 두단어와 함께 해왔 다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과거 군사독재정권과 오늘의 정권이 과연 무엇이 다른가.

따라서 이번 '96 한총련 연세대 통일투쟁을 계기로 검찰이 대학신문의 이적성을 가려 대학신문기자들을 사법처리하고 나아가 대학의 재정지원을 차등지 원하겠다는 발상은 지난 87년 민주화 투쟁이후의 시대적 흐름을 명백히 역행하는 처사라 하겠다.

학교당국도 이러한 정부의 교육재정 차등 지급 압력에 굴복해서 안된다. 교육재정이 라는 미명아래 진행되는 대학자율권 침해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는가 말이다.

오히려 대학당국자들은 그동안 대학자율화를 위해 노력했던 성과들을 바탕으로 현재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대학신문기자들에게 사상의 자유와 대학언론의 자유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언론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론직필의 대의명제를 안으로 새기고 어떠한 탄압에 있어도 붓을 끄지 않는 불굴의 정신으로 대처해야겠다.

대학은 개혁과 비판의 열린 창으로 남아있어야 하며 정부는 더이상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근대적인 발상을 하루속히 철폐해야만 될 것이다.

정론직필은 꺾이지 않는다

이라크 향한 미사일, 되돌아 오는 지지율

시론

국제질서와 초강대국의 국내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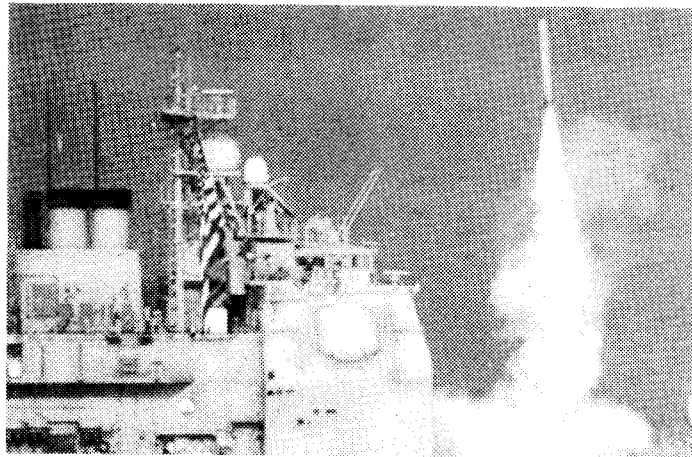
임 성 호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외정책은 국내정치의 연장선이 크다. 이 점은 타국의 눈치를 상대적으로 덜 살피는 강대국의 경우엔 특히 그렇다. 오늘날의 미국과 같이 세계체계의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남으로부터의 구속을 신중을 덜 쓰는 경우에는 더더욱이 그렇다. 초강대국의 국내정치 상황은 그 나라의 대외정책에 반영되어 국제환경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미국이 혼자 콧물을 흘려도 다른 약소국들은 독감에 걸린다. 미국의 대외정책에 반영되어 국제환경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미국이 혼자 콧물을 흘려도 다른 약소국들은 독감에 걸린다. 미국의 대외정책에 반영되어 국제환경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미국이 혼자 콧물을 흘려도 다른 약소국들은 독감에 걸린다.

이라크공격 선거역학의 결과

11월에 선거를 앞두고 현재 미국 국내정치는 혼란 상태에 있다. 공화당은 클린턴 대통령의 선거패배를 위해 필사적이다. 민주당은 백악관 수성을 위해 물살 틈 없는 방어전을 치루고자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어도 하원에서 다수당으로 등극코자 혈안이다. 이 정치적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만만하고 미국국민 사이에서 악당의 이미지를 굳힌 후세인의 이라크를 치는 전략은 현 클린턴 행정부 뿐 아니라 민주당 전체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높일 수 있으리라 쉽게 짐작된다. 이라크에의 공격이 없었다면 공화당이 클린턴의 우유부단함을 몰고 늘어지는 선거전략을 구사했을 것이다. 어떤 근거있는 도덕적 혹은 국제법적 이유로서보다는 선거역학의 결과로



▲미 함대에서 발사된 토마호크 미사일



▲11월에 선거 앞둔 클린턴

쿠르드족 보호위한 이라크 공격 설득력 적어 국제질서 임의재편에 규범논쟁 전개해야

한 나라의 공격이 결정되었다면 제3자의 입장으로서는 입맛이 씹을 할 뿐이다.

비난 여론 불구한 2차공격

물론 국내정치만이 요인은 아닐 것이다. 국내정치와는 별도로 미국 자국의 절대적 해체모니를 위해 현재 세계질서를 유지한다는 안보전략적 판단과 이라크의 압제로부터 쿠르드족을 보호한다는 윤리적 생각도 전혀 없었다고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페르시아만 요충지인 쿠웨이트의 침공 때와는 달리 이라크가 자국 영토 내의 쿠르드족에 대해 간섭하는 것이 미국의 안보전략적 이익에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은 별로 없는 듯하다. 또한, 쿠르드족 보호의 인도적 차원에서 미국의 행동을 설명하려는 것 역시 실리 위주인 현실 국제정치를 관찰

해 온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지 못한다. 미국의 우방국들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지하지 않거나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가운데 미국이 과감하게 2차 공격까지 행하고 후속 공격도 고려하는 이면에는 국내정치 상황의 계산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비단 미국 사회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외적으로 큰 문제가 그것도 군사력이 동원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적 단합이 이루어지고 행정부와의 지지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2차대전 이후만 보아도 국제적인 무력 개입 직후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미국사회의 지지도가 급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가장 최근의 예로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 공격 후 당시 부시 대통령이 누렸던 거의 90%에 달하는 지지율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점을 선거전에 돌입한 클린턴 측이 간파했을 것 같지는 않고, 실제 이번에도 이라크에의 공격으로 클린턴의 인기는 국내적으로 높이 치솟았다. 선거라는 변수가 없었다면 미국 측이 사담 후세인의 그 정도 행동에 과연 그렇게 강경하게 대응했을까 의문이 든다.

군사력 동원 국민단합불러

초강대국의 국내정치 사정이 국제정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비록 우리와 같은 약소국들로서는 불쾌하고 당위적인 차원에서 비판해야 할 일이나, 남의 눈치를 안 보아도 별 탈 안 생기는 초강대국인 미국에 대한 보다 충분한 연구를 하는 것도 현실적인 차원에서 절실히 요망된다. 지미(知美)는 친미와 반미의 감성적 극단을 극복하고 우리 스스로의 이익을 찾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학내 정보통신 개선돼야 한다”

LAN망 재정부 필요...수강신청 전산화 오히려 더 불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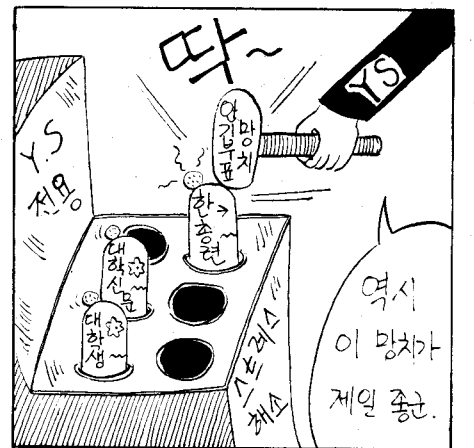
우리학교는 대내외적으로 정보화에 힘써왔다. 수강신청 전산화, 재택수업 실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등 많은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이러한 학교의 정보화 정책에 대해서 비판의 여론도 일고있다. 이에 대해 천리안 우리학교 동호회 토론방에 있는 글들을 정리해 보았다. (편집자)

—각 단체 현판에는 컴퓨터가 LAN망을 통해 취업정보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지만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 자주 LAN망이 고장나고 컴퓨터가 다운되는 것에 대한 시급한 보수와 충분한 사전홍보로 학내 컴퓨터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손쉽게 LAN망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 또한 학내에서 인터

넷 홈페이지 경진대회를 열어 지금의 일괄적인 웹페이지 보다 더욱 호소력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면 한다. 천리안ID: FS2510

—예전에는 수강신청을 할 때 직접 손으로 OMR카드를 작성해서 신청했지만 지금처럼 혼란스럽지는 않았다. 지금은 전산실과 과사무실을 들락거려야 하는 등 수강신청에 전산화를 도입하였지만 오히려 예전보다 더욱 불편해 졌다는 것이다. LAN망도 잘 구비되어 있지만 통신망의 주소가 나와있지 않아 일반학생들이 LAN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수강신청을 넘어서는 일이 드물다. 천리안ID: RYUL02 (김동욱 기자)

고 황 만 평



“돌아온 망치!”

현대정보기술(HIT)이 21세기 정보사회의 주역을 초대합니다

전문가에게는 전문회사가 필요합니다.

21세기 정보사회를 이끄는 정보전문가 집단,

현대정보기술이 정보전문가의 꿈을 키워온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96 기업설명회 개최

■개회일정

차수	일시	장소
1차	9.16(월) 오후 3시	송실대 학생회관 4층 계단 강의실
2차	9.17(화) 오후 1시	이주대 율곡관 대강당
3차	9.18(수) 오후 3시	경희대 중앙도서관 시청각실
4차	9.19(목) 오후 3시	서강대 경영관 302호 강의실
5차	9.20(금) 오후 3시	한양대 박물관 세미나실
6차	9.23(월) 오후 3시	고려대 경영대학 학우강당

*당일 설명회장에서 97년도 신입사원 입사원서 교부예정.
*기업설명회 참석자 여러분께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문의처: 02-746-4186)

현대정보기술주식회사

사람, 사회, 미래를 위한 가치경영

METHOD Init(oParent) LOCAL cPrinter ASSIGNED super:Init(oParent) cPrinter := WininiFS:GetS... oDCCurrentPrinterText...